

【신청서 요약문】

<신청서 요약문>

중심어	정보서비스	일상생활	공공도서관
	공동체아카이브	정보요구	정보행태
	생활SOC	지속가능성-공공도서관	지속가능성-정보서비스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p>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 전문인력 교육연구단’의 비전은 “정보, 삶을 바꾸는 힘”이다. 이는 일상으로부터의 변화를 통하여 지식정보사회의 민주주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일에 정보가 핵심이며, 일상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파편화, 분절화된 삶에 정보를 통하여 개입하기 위하여 우리 사업단은 문헌정보학+기록학을 비롯한 융합적 교육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 역량을 갖춘 사서, 정보전문가, 기록관리전문가, 사회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들은 개인의 일상에 밀착된 정보요구를 분석하고 행태를 이해하며, 시민의 삶에 변화를 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큐레이션하며, 정보 입수를 최적화한다. 그리고 정보서비스의 사회적 구현체인 정보서비스기관을 구성하고, 지역민의 일상을 기록한다. 이렇듯 우리 사업단이 양성하고자 하는 정보서비스 전문가들은 개인의 모든 삶의 장면에서 정보라는 처방을 내리고, 공동체가 갈등을 넘어 사회적 항상성(social homeostasis)을 유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p> <p>이러한 비전 아래 우리 사업단은 정보를 매개로 1) 시민의 일상에 개입하고, 2) 일상의 변화를 통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그 역량을 강화(empower)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1) 지식정보생태계 혁신을 주도하고; 2) 문헌정보학의 학제적 특성을 극대화하며; 3) 실천적 교육과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p> <p>우리 사업단은 참여 교수 전원이 문헌정보학+기록학 분야에서 최고의 교육·연구 역량을 갖고 있으며, 최상의 사업 역량을 지니고 있다. 현 재직교수는 8명으로 이미 전국 문헌정보학과 중 가장 많은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1일 사업 시작과 동시에 독서와 정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분야의 전임교수 1인이 합류하여, 총 9명 체제로 사업을 시작한다.</p>		
교육역량 영역	<p>사업단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사업단은 1) 시민의 일상에 개입하고, 2) 시민들의 일상의 변화를 통하여 공동체를 구축(build)하고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empower)하는 단초를 놓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사업단은 정보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 사고를 갖추고, 실무 현장에서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한다.</p> <p>우리 사업단의 4대 교육목표는 1) 정보요구의 분석, 정보자원의 수집과 평가, 정보서비스의 개발과 활용 등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에 필요한 연구 역량 개발; 2) 정책과 현장, 현장과 이론의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 역량 개발; 3) 정보요구와 행태를 파악, 조정하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4) 국내외의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국제화 역량 개발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재설계와 운용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이 실무현장 및 정책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민간부문 및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사업단의 교육·연구성과가 사회에 환류되는 지식정보생태계의 선순환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 사업단은 참여교수 전원이 다년간의 교육과 학생지도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p>		

	<p>특히 외국인인 홀리스터 교수가 참여하고 있어 특별히 해외 교육/연구기관과의 교류,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참석, 각종 국제학술대회 발표 등 국제화 역량 배양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p>
<p>연구역량 영역</p>	<p>문헌정보학+기록학 지식의 융합과 통합적 교육을 바탕으로 한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 교육과 연구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 방식을 탈피한 창의적 연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안점은 1) 지식정보생태계 혁신을 주도하는 창조적 연구; 2) 문헌정보학+기록학의 학제적 특성을 극대화한 융합적 연구; 3)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실천적 연구 등이다.</p> <p>이를 위하여 우리 사업단은 국내외 관련 연구자와 기관과의 융합연구를 추진하고, 다양한 주제에 걸쳐 공동연구와 개인연구를 동시에 추진한다. 사업단 구성원 개인이 주시하고 있는 연구주제를 예시하면, ① 데이터를 통한 예측; ② 재난정보추구 (Disaster information seeking); ③ 건강정보 소비와 큐레이션; ④ 고령화, 50+ 정보서비스; ⑤ 구술, 비문자 자료; ⑥ 로컬리티와 공동체/커뮤니티 아카이브 구축; ⑦ 생활SOC 기반 공공도서관; ⑧ 가짜뉴스와 정보리터러시, ⑨ SF, 웹툰, 게임 기반 온라인공동체; 그리고, ⑩ 코로나 이후 뉴노멀(new normal)시대의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사업단은 ① 정보서비스에 대한 감지; ② 정보서비스를 위한 시스템과 네트워크; ③ 정보서비스 표준; ④ 위기관리(risk management); ⑤ 정보서비스의 평가; ⑥ 국가별 또는 국제적 정보서비스 프로젝트 등에 대한 공동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결과의 사회 환류를 위해 도서관, 기록관, 기업, 문화재단, NGO, 문화운동 플랫폼, 출판계, 언론사, 연구소 등 정보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단의 경험을 확장할 것이다.</p>
<p>기대 효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사업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 전문가 교육과 연구를 특성화하고 대학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우리 사업단에서 배출되는 졸업생들은 맥락 요소가 고려된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 전문가(specialist)로서 차별성을 지닌다. 따라서 지역 거점대학 문헌정보학 대학원의 경쟁력을 월등히 높이게 될 것이다. 2.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최근 post-COVID19 아젠다, 즉, 비대면 정보서비스, 가상공간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온라인 북큐레이션과 추천시스템, 로봇기반 독서제공 등의 New normal 서비스 등장, 그리고 UN SDGs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IFLA)에 따라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매우 증가할 것이다. 우리 사업단이 배출한 인력들은 향후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자, 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턴트, 평생교육 지도자, 문화프로그램 기획자, 커뮤니티 아키비스트 등으로서 사업 성과의 사회 환류라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3. 이 사업을 통해 우리 학과는 지역 거점대학의 책무를 다할 수 있다.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NGO, 문화기관 등을 아우르며 지식정보의 창조적 재생산과 융합을 위한 연구와 교육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국내 최고의 정보서비스 연구센터로 성장하고자 한다. 특히, 정보를 통해 시민의 일상에 개입하고 공동체의 구축과 역량강화를 이룸으로써 지식정보생태계의 선순환 과정이 사회적 향상성과 지속가능성 증진으로 귀결되도록 하고자 한다. <p>이상에서 보듯이 우리 사업단의 재직교수 8명은 그동안 정보라는 창을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또한 로컬리티 문제 연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민의 기억을 남기는 작업을 성공리에 마친 바 있다. BK21 FOUR 사업이 이러한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강화, 사회의 건강성 확보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p>